

재번역 및 자가교정(self-revision) 분석을 통한 한국문학번역 방향 고찰하기: 「서울, 1964년 겨울」을 기반으로*

이 상 빈
(한국외대)

1. 머리말

지난 3년간 번역과 관련해 국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주제는 아마도 「채식주의자」(2007년 한강 작)의 영역(英譯)인 *The Vegetarian*(2015년 데보라 스미스 역, 2016년 <맨부커인터내셔널> 수상)일 것이다. 관련 연구의 경우 연구자 층이 매우 다양하고, 논문의 수도 2000년 이후 출간된 소설로는 동일 기간 대비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5월 초 현재, 전문가동료심사를 통해 게재된 국내 번역(학) 논문 중에 제목에 “채식주의자”나 “Vegetarian”을 포함한 논문은 최소 14편에 이른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 기준).¹⁾

* 특별호 편집위원장과 익명의 심사 위원 3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1) “Deborah Smith”, “채식주의자”, “The Vegetarian” 등으로 키워드(keyword) 검색을

이처럼 「채식주의자」의 번역이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좀 더 멀리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우려할만한 부분도 없지 않다. 예컨대 ‘다시쓰기’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한 번역을 놓고 어휘적 등가 차원에서의 ‘오류’ 찾기에 집중한 것은 아닌지, 혹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에만 학문적 역량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훌륭한 한국문학작품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그러한 작품의 번역은 보다 다층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한국 문학사(文學史)에 중대한 이정표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번역학자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가의 다층적 언어사용의 실례를 탐구하고 한국문학의 번역을 논의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960년대 국내 문단을 대표한 인물 가운데 하나인 김승옥의 대표작 「서울, 1964년 겨울」과 그 영역본을 기반으로, 각 텍스트의 “경험적 메타기능”(experiential metafunction), “상호적 메타기능”(interpersonal metafunction), “구성적 메타기능”(textual metafunction)을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문학번역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Thompson 2014). 특히 본고에서는 서로 다른 번역문 세 개(90년대 번역 세 개)와 번역가 한 명의 초역(初譯, 60년대 번역)²⁾을 포함하여 총 네 개의 번역문을 비교함으로써 한국문학번역의 상황과 방향을 사례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과 접근법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첫째, 분석 대상의 경우 영역본의 수가 많고 자가교정(self-revision)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재번역(retranslations) 세 개를 비교하면서 동시에 특정 번역가의 자가교정을 고찰할 수 있다면 번역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적 재현을 비교할 수 있고 번역에 대한 이론적 담론도 그만큼 확대할 수 있다. 둘째, 세 가지 메타기능을 중심으로 번역을 살펴볼 경우 각 번역의 특징을 보다 균형 있게 탐구할 수 있다. 즉 분석 내용과 범위를 미리 제한하지 않고 각 번역문이 갖는 특징을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 층위에서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2) 본 논문에서는 ‘초역’이라는 용어를 抄譯(원문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번역함, 또는 그러한 번역물)이 아닌, 初譯(첫 번째 번역)의 의미로만 사용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한국문학의 번역과 관련된 연구

한국문학의 번역은 그간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가령 국내에서 발행된 논문을 보면, ‘한국문학의 해외번역 출판 및 현황’(김정연 2015; 최수연 2017),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관련 담론’(이형진 2016; 유한내 2017b), ‘한국문학 번역의 평가 및 수용’(김영신 2012; 이인규 2017; 신지선·조혜진 2018), ‘번역 전략 및 방법’(김영신 2016; 이지민 2018), ‘은유 등의 수사법’(최미경 2011; 이현주 2018), ‘문체 및 화법’(김순영 2010; 조의연·조숙희 2017)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가운데 번역학 안팎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구 유형을 꼽으려면 아마도 원문의 어휘 요소와 번역문의 대응어를 미시적 관점에서 비교한 연구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번역 실무에서 언어 쌍과 관계없이 항상 난제로 지적되어 왔던 소위 ‘문화지시어’(culture-specific references)와 관련된 것들이 많다(성초림 2009[스페인어]; 오미형 2011[영어]; 금지아 2015[중국어]; 박순례 2017[아랍어]; 김경희 2017[프랑스어]).

한국문학의 번역과 관련된 연구는 연구방법론이나 분석 방법에 있어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단어나 구 차원의 오역을 지적하거나 연구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처방적(prescriptive) 관점을 제시한 경우가 많다(예: 김옥동 2010; 김대중 2016; 신혜정 2017). 처방적 관점의 연구는 현존하는 번역을 상세히 검토하여 원문으로부터의 이탈을 확인하고 유사한 실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자칫하면 번역(가)의 현실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비판을 위한 이론적 담론에 그칠 수도 있다. 둘째,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분류 과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잦다. 즉 연구자는 원문과 번역문의 차이를 도출한 후 그 간극을 나름의 기준으로 항목화하여 열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분석 내용이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급변할 수 있고 분석 방법도 ‘과학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행히 최근에는 분석틀을 미리 제시한, 언어학적 배경을 갖춘 연구도 조금씩 늘고 있다. 예컨대 한미애(2011)는 인지시학(cognitive poetics)이라는 관점을 기반으로 「학」(황순원 작)의 “화법”, “시제”, “장면전환”을 분석하였고, 마승혜(2017)와 이상빈(Lee

2018)은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을 기반으로 각각 「채식주의자」의 평가어(appraisal)와 「날개」(이상 작)의 인물묘사(characterization)를 탐구하였다. 셋째,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한 연구의 경우 정성적 분석이 주를 이룬다. 다만 최근의 일부 연구들은 정성적 분석 이외에 정량적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내용 타당성을 크게 제고하였다(이창수 2016; 최희경 2016; 조의연·조숙희 2017; 이현주 2018).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내용과 방법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네 개의 번역본을 비교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룬 번역문 세 개는 번역가는 서로 다르나 출판시기(90년대 출판)가 거의 비슷한 것이며 나머지 한 개는 동일 번역가의 초역(60년대 출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문학 번역의 통시적 사례와 공시적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둘째, 체계기능언어학의 접근법을 활용하여 각 텍스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문화지시어와 같이 미시적인 항목만을 미리 정한 후 원문과 번역문의 차이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언어사용의 거시 영역을 하나씩 고려한 후 각 거시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위 영역을 도출하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탐구하였다(3.2장을 확인할 것).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보다 다양한 종류의 예시와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셋째, 번역에 대한 처방적 관점을 지양하였다. 기존의 일부 연구자들이 오역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했다면, 필자는 각 번역의 장점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번역의 다양성과 차이에 주목하였다.

2.2 「서울, 1964년 겨울」 및 번역 연구

김승옥(1941~)은 1960년대 국내 문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이다. 그는 단편 「생명연습」(1962)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였고, 1965년에는 「서울, 1964년 겨울」로 제10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어 1977년에는 「서울의 달빛 0장」으로 제1회 <이상문학상>을 거머쥐었고, 2012년에는 국내 문단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예술원상>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특히 1964년에 발표한 「무진기행」은 한국현대문학사에서 가장 탁월한 단편소설 중 하나로 꼽힌다.

「무진기행」과 함께 김승옥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서울, 1964년 겨울」은 1965년 6월 <사상계>에 발표된 단편이다. 이 소설은 문명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꿈을 상실한 현대인의 삶을 탁월한 방식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시 문단을 대표하는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두산백과 n.d.).

1964년 서울 겨울날, 나는 선술집에서 ‘안’이라는 대학원생을 우연히 만난다. 나는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했다가 낙방하고 제대한 뒤 구청 병사에게 근무하는 25세의 청년이고 동갑인 안은 부유해보인다. 둘은 시시껄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된다. 자리를 떠나 밤거리를 배회하다가 여관에 들기로 합의하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 가난해 보이는 서른 대여섯살의 한 사내가 함께 데려가 줄 것을 간청한다. 그는 서적외판원으로 오늘 낮에 아내가 급성뇌막염으로 병원에서 죽었는데 장례비가 없어 시신을 팔고 4천원을 받았다는 사연을 털어놓고 그 돈을 오늘밤 다 써야 하는데 도와달라고 한다. 중국집과 양품점과 과일장수에게 돈을 썼지만 아직도 돈이 남아 있어 쓸 데를 궁리하던 중 택시를 타고 불자동차를 따라간다. 화재 현장에 도착한 세 사람은 불구경을 한다. 사내는 갑자기 불길을 보며 아내라고 소리친다. 그가 불길 속에 남은 돈을 모두 던진 사실을 알고 나와 안은 사내와 작별을 하려 하나 사내는 아직도 함께 있기를 원하여 할 수 없이 여관에 든다. 한방에 들기를 원하는 사내를 무시하고 세 사람은 각각 다른 방에 든다. 이튿날, 사내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눈이 오는 이른 아침에 뒷일이 귀찮아 도망치듯 여관을 빠져 나온다.

「서울, 1964년 겨울」의 번역과 관련된 연구는 RISS와 KCI 홈페이지 확인 결과, 세 편으로 확인된다. 먼저 김경희(2007)는 「서울, 1964년 겨울」의 프랑스어 번역본 두 개를 형식적 차이와 의미적 차이로 비교하였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두 번역의 길이(단어 수), 역자 주의 사용 여부, 문체의 차이(만연체 vs 간결체) 등에 주목하였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번역전략(직역 vs 의역)과 오역 사례를 비교하였다. 다만 김경희의 연구는 두 번역본의 장단점을 확인하면서 주로 품질평가에만 초점을 맞춘다.

김경희(2007)의 접근법은 박옥수(2010)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박옥수는 피터 리(Peter H. Lee)와 정중화(Chong-hwa Chung)의 번역을 비교하면서 ‘번역은 차라리 ~ 이어야 했다’는 처방적 관점을 소개한다. 가령 소설의 배경이 되

는 ‘서울’을 번역할 때는 단순히 “Seoul”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The capital city, Seoul”로 번역해야 옳다고 주장한다. 박옥수는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텍스트의 배경 요소”(pp. 38-44), “인물의 성격”(pp. 44-47), “원문 고유의 언어 표현”(pp. 47-51)이라는 항목에서도 유지하면서 “한영 문학 번역을 위한 몇 가지 제안”(pp. 54-58)을 제시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달리 일부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 번역을 수행한 후 번역에 대한 자평을 진행하기도 한다. 예컨대 로브나(2016)는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을 통해 서울, 1964년 겨울」을 아랍어로 번역한 후 번역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특히 그는 지명과 장소(pp. 102-104), 음식 관련 명사(pp. 105-106), 호칭어(pp. 108-109), 문법 및 문장 구조(pp. 111-112), 문학적 표현(pp. 114-115) 등의 분야에서 자신이 번역하면서 어렵게 느낀 점과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간단한 사례로 소개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단순히 번역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면서 의미 있는 학문적 담론을 생산하지는 못한다.

3. 분석자료 및 분석접근법

3.1 분석 자료

본 연구에 활용된 원문(ST)은 1967년 창우사가 출판한 김승옥의 편저 『서울, 1964년 겨울』이다. 이 텍스트를 원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번역문 가운데 하나가 60년대에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분석된 번역문(TT) 가운데 세 개는 2018년 초 현재 Amazon.com에서 구할 수 있는 영역본이며, 모두 90년대 초중반에 출판되었다. 세 번역문 TT1, TT2, TT3의 출판 정보는 다음과 같다.

TT1: ‘Seoul: Winter 1964’ (Peter Lee 번역, 1990년 University of Hawai’i Press가 출판한 *Modern Korean Literature: An Anthology*의 일부)

TT2: ‘Winter, 1964, Seoul’ (Chong-wha Chung 번역, 1995년 영국의 Kegan Paul International이 출판한 *Modern Korean Literature: An*

*Anthology 1908-65*의 일부)³⁾

TT3: ‘Seoul: 1964, Winter’ (Marshall Pihl 번역, 1993년 M.E. Sharpe가 출판한 *Land of Exile: Contemporary Korean Fiction*의 일부)⁴⁾

분석대상으로 「서울, 1964년 겨울」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가 김승옥과 「서울, 1964년 겨울」이 갖는 위상 때문이다. 「서울, 1964년 겨울」은 <동인문학상>이라는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았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명작이다. 둘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작품에는 다수의 번역본이 존재한다. 번역본이 여러 개라면 번역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찰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표에도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각 번역이 한국문학번역 선집(anthology)에 수록되어 있고 각 번역가도 국내 문학계/번역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번역의 위상과 품질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특정 번역(TT3)의 경우 해당 번역가의 초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초역(이하 “TT3-OLD”라 칭함)의 출판 정보는 다음과 같다.

TT3-OLD: ‘Seoul-1964-Winter’ (Marshall Pihl 번역, 1966년 *Korea Journal*에 게재) *따라서 TT1, TT2, TT3는 TT3-OLD의 재번역이며, TT3는 TT3-OLD의 자기교정에 해당한다.

TT3-OLD의 경우처럼 동일 번역가의 초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몇 가지 의미 있는 고찰이 가능하다. 예컨대 ‘바람직한’ 또는 ‘충분한’ 번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일 번역가의 관점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만일 초역과 자기교정 사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된다면 그 사례를 통해 한국문학번역의 통시적 방향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TT3와 TT3-OLD의 출판 시기는 약 27년이나 차이가 난다.

3) TT2는 Routledge를 통해 2010년 재출판된다.

4) TT3는 2005년 Columbia University Press가 출판한 *Modern Korean Fiction: An Anthology*에도 실려 있다. *Land of Exile: Contemporary Korean Fiction*은 2007년 확장판으로도 나왔다.

3.2 텍스트 분석을 위한 접근법

필자는 ST와 TT를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체계기능언어학에 따르면 인간의 언어사용은 “경험적 메타기능”, “상호적 메타기능”, “구성적 메타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각 메타기능을 분석하면 언어의 “의미”(function)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⁵⁾ 여기서 경험적 메타기능이란 세상에 대한 인간(언어사용자)의 경험을 총칭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물, 사건, 상황 등을 묘사하거나 자신의 감정 및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사용을 일컫는다. 한편 상호적 메타기능은 다른 언어 사용자와의 관계를 형성·변경·유지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사용 일체를 의미한다. 이 메타기능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호칭과 같은 언어사용을 비롯해 제안·명령·단언·질문 등의 담화역할(speech roles)과도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구성적 메타기능은 메시지를 조직하는 방법과 관련된 영역이다. 가령, 메시지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끔부(theme)와 딸림부(rheme)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혹은 텍스트 내에서 결속성(cohesion/coherence)을 유지하기 위해 지시, 생략, 반복, 접속어 등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구성적 메타기능에 해당한다.⁶⁾

4. 분석 결과

필자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메타영역을 고려하여 「서울, 1964년 겨울」의 ST와 TT 4종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서로 다른 TT 간에는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 5) 경험적 메타기능과 논리적 메타기능(logical metafunction)을 합쳐 관념적 메타기능(ideational metafunction)으로 부른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톰슨(Thompson 2014)의 관점대로, 경험적 메타기능, 상호적 메타기능, 구성적 메타기능을 의미구성의 3대 영역으로 간주하고, 논리적 메타기능은 다소 부차적인 메타기능으로 판단한다.
- 6) 메타기능의 하위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2014)와 같은 기본서를 학습해야 하는데 그 분량이 700쪽을 넘는다. 본 논문에서 개괄적으로밖에 다룰 수 없는 이유이다.

- (1) 경험적 메타기능: 개체, 현상, 사건 등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법([예시 1]부터 [예시 3]까지의 분석)
- (2) 상호적 메타기능: 등장인물의 관계에 따른 호칭, 등장인물의 심리([예시 4]부터 [예시 6]까지의 분석)
- (3) 구성적 메타기능: 문장 연결, 결속성/지시 관계([예시 7]과 [예시 8]의 분석)

4.1 경험적 메타기능 영역

경험적 메타기능에서는 어휘 요소가 현실세계를 표상하는 방법과 그것이 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살펴본다.

[예시 1]

ST (p. 59): 옥상에서는 소주 광고의 네온사인이 열심히 명멸하고 있었고

TT1 (p. 225): [T]he liquor advertisement was flashing as relentlessly as before [...]

TT2 (p. 338): On the top of a tall building one neon sign was blinking incessantly, advertising soju.* [...] *soju is one of the most popular drinks in Korea, distilled from rice. [*부분은 각주의 내용임]

TT3 (p. 92): A neon sign advertising soju on the roof of a building flashed enthusiastically [...]

TT3-OLD (p. 28): A neon sign advertising wine on the roof of a building was flashing enthusiastically [...] (밑줄만 필자의 것임)

[예시 1]에서는 ‘소주’가 얼마나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TT1에서는 소주의 상위어에 해당하는 “liquor”를 사용함으로써 소주의 문맥적 의미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이어 TT2에서는 소주를 음역하고 그 의미를 각주에 소개하였다. 일반적으로 각주는 소설 장르에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TT2의 각주는 짧고 간단하며 TT2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용된 각주이기 때문에 독자에게도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TT3에서는 TT2와 마찬가지로 소주를 음역했지만 그 의미는 풀어쓰지 않아 독자가 소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했다. 반면 TT3-OLD에서는 60년대 서울과 어울리

지 않는 “wine”으로 자국화(domestication)하여 TT3와 대비를 보인다.

‘술’과 관련된 각 TT의 접근법은 다른 대목에서도 확인된다. 아래 [예시 2]의 TT1과 TT3-OLD에서는 “선술집”과 “술”을 각각 “wine shops”와 “wine”으로 번역한 반면, TT2와 TT3에서는 “(street) stalls”jvf “drink”(liquor)로 일반화하였다. 특히 TT3-OLD와 TT3를 비교해보면 [예시 1]의 경우처럼 TT3-OLD의 자국화 전략이 TT3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예시 2]

TT1 (p. 216): [...] those wine shops ... three kinds of wine

TT2 (p. 331): [...] the street stalls ... three kinds of drink

TT3 (p. 85): [...] those stalls that ... three kinds of liquor

TT3-OLD (p. 20): those wine shops ... three kinds of wine

아래 [예시 3]의 문화지시어도 [예시 1]과 [예시 2]의 경우처럼 시대적 상황과 연관된 사례이다.

[예시 3]

ST (pp. 23-25): 내가 만일 라디오의 박사 게임 같은 데에 나가게 돼서

TT3 (p. 87): I had remembered that story on purpose, just in case I got on some kind of quiz program on the radio [...]

TT3-OLD (p. 21): I had remembered that story on purpose, just in case I got in on something like Information Please on the radio [...]

[예시 3]에서 “박사 게임”은 퀴즈 프로그램을 뜻하는 문화지시어에 해당한다(박옥수 2010: 40). 그런데 TT1, TT2, TT3에서는 박사게임을 “(some kind of) quiz program”과 같이 일반화하여 번역하였다(TT1, TT2는 TT3와 유사하여 생략한다). 반면 TT3-OLD의 경우 “Information Please”로 미국화(Americanization)하였다. Information Please는 193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까지 진행되던 미국 NBC 라디오의 퀴즈 쇼이며, 이 쇼는 TT3-OLD의 번역 당시 미국 독자들에게 익숙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Information Please와 같은 번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현 시점에서는 미국 독자라 할지라도 Information Please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주인공 “나”는 60년대 한국사회에서 대학 진학에 실패한 농촌 청년이며, 따라서 Information Please와 같은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기에는 맥락상 어색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시 3]에서 확인된 TT3-OLD → TT3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wine”의 변화처럼 탈자국화(de-domestication)로 설명된다.

4.2 상호적 메타기능 영역

본 절에서는 지시어, 호칭, 문장부호 등과 관련된 예시를 살펴봄으로써 분석 텍스트의 상호적 메타기능을 확인한다.

[예시 4]

ST (p. 17): 그 안경쟁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TT1 (p. 217): My bespectacled companion asked a commendable question
 TT2 (p. 332): I heard the bespectacled fellow ask a brilliant question
 TT3/TT3-OLD (p. 86): Four-Eyes asked me quite a question

[예시 4]는 대학원생 “안(安)”에 대한 “나”의 속마음을 보여준다. ST에서 나는 안을 “안경쟁이”(안경 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묘사하고 있으며, 나와 안의 정서적 거리는 관형사 “그”를 통해 더욱 더 멀게끔 느껴진다(앞에 있는 대화 상대를 “그”로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TT1의 경우 “안경쟁이”가 “bespectacled companion[친구 같은 존재]”으로 표현되면서 ST의 “표현적 의미”(expressive meaning)가 변화되었다(Baker 2011: 11).⁷⁾ 또한 “my”라는 한정사로 인해 나와 안의 정서적 유대감이 오히려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을 아이러니(irony)로 해석한다면 “my bespectacled companion”도 다른 두 TT와 비슷한 효과를 줄 수도 있다. 한편, TT2에서는 “the ... fellow”라는 표현으로 두 인물 간의 거리를 적당히 유지했고 의미상 필요 없는 “I heard

7) 표현적 의미란 어휘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과 관련된 의미이다. 가령 whinge의 명제적 의미는 complain과 비슷하지만, 전자가 ‘to complain in an annoying way’를 뜻한다는 점에서 두 동사의 표현적 의미는 다르다(Baker 2011: 11-12).

...”를 추가함으로써 인물 간의 거리감을 강조했다(“I heard ...”는 여기서만 유표적으로 사용된다). 반면 TT3와 TT3-OLD에서는 TT1, TT2의 복잡한 방식을 동원하지 않고 어휘적 요소로만 두 인물의 거리감을 직설적으로 묘사하였다. 관용표현 ‘four-eyes’는 안경 낀 사람을 경멸조로 부르는 속어이다.

[예시 5]

ST (p. 37): “그 사실은 완전히 김형의 소유입니다.”
 TT1 (p. 220): “That fact belongs only to you.”
 TT2 (p. 335): ‘The fact belongs to you and nobody else, Mr Kim.’
 TT3 (p. 89): “That fact is entirely your property alone, Kim hy ng.” He called me “older brother” [...]
 TT3-OLD (p. 22): “That fact is entirely your property alone, Kim.”

[예시 5]에서 “형”(兄)은 “나이가 비슷한 동료나 아랫사람의 성 뒤에 붙여 상대방을 조금 높여 이르거나 부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이다. 이 의존명사는 한국 문화와 언어가 반영된 독특한 호칭어에 속하며 영어의 Mr, 프랑스어의 Monsieur 등과는 사뭇 다르다. 그런데 TT1에서는 “형”의 복잡한 의미를 피하기 위해 호칭어 대신 대명사 “you”를 사용하였다. 한편 TT2에서는 독자에게 친숙한 Mr로 대체하였고, TT3-OLD에서는 “Mr”와 “형”의 불일치를 감안해서인지 호칭어 없이 “Kim”이라고만 표현하였다. 반면 TT3에서는 “hy ng”이라는 음역을 사용하여 영어권 독자들에게 매우 낯선 느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단순한 음역이 아닌 이유는 ST에 없는 부가적 설명(“He called me ‘older brother’ ...”)을 삽입함으로써 “형”의 의미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말하면, “hy ng”이라는 호칭어는 TT3에서 무려 15회나 반복되면서 영어권 독자들에게 조금씩 성공적으로 다가간다.

[예시 6]

ST (p. 25): ‘개새끼, 그개 꿈틀거리는 게 아니라고 해도 괜찮다’하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TT1 (pp. 218-219): [...] “All right, you son of a bitch,” I thought, “if you don’t think that’s wriggling, it’s all right with me.”

TT2 (p. 333): [...] I thought to myself, 'Son-of-a-bitch, all right, so it's not wriggling then.'

TT3 (p. 87): [...] Sonofabitch. If he doesn't think that's wriggling, it's okay by me. I was thinking.

TT3-OLD (p. 21): [...] 'Sonofabitch. If he doesn't think that's wriggling, it's O.K. by me!' I was thinking.

[예시 6]에서 ST의 밑줄 친 부분은 “안”에 대한 주인공의 정서적 거리를 속마음의 형태로 전달한다. 이처럼 작가 김승옥은 “나”의 진심을 표현하고자 할 때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작법은 나와 안이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TT1, TT2, TT3-OLD에서는 비록 ‘I thought’ 등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나의 속마음을 나와 안의 일반 대화와 구분하지 않았다(예컨대 TT2의 경우 일반 대화도 작은따옴표로 표현하였다). 다만 TT1과 TT2는 각각 큰따옴표와 작은따옴표로 표기 방법을 통일함으로써 독자에게 익숙한 서술문법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수용 가능하다. 한편, TT3에서는 ST에 없는 이탤릭체를 유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나의 속마음에 집중시키고 있다.⁸⁾ 이러한 이탤릭체의 사용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TT3 내에서 이탤릭체의 사용이 매우 절제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가시성이 높다).

4.3 구성적 메타기능 영역

구성적 메타기능에서는 문장연결 및 결속성과 관련된 예시를 살펴본다.

[예시 7]

ST (pp. 9-13):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 소개가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스물다섯 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專攻)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스물다섯 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 갔다가 임질에 한 번 걸려 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兵事係)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TT1 (pp. 216-217): The graduate student and I began a conversation, and when the introductions were finished I knew that his name was Ahn, that he was twenty-five, was majoring in a subject I had never heard of, and was the oldest son of a rich family. // He, in turn, learned that I was twenty-five and had been born in the country. // After being graduated from high school, I had applied to the Military Academy but had failed and so had enlisted in the army, where I had caught gonorrhoea once. // I was now working in the military affairs section of a ward office. (문장 구분 표시는 필자의 것)

TT3 (p. 85): The chit-chat started off between me and the graduate student, and when the small talk and self-introductions were over I knew he was a twenty-five-year-old flower of Korean youth, a graduate student with a major that I (who hadn't even gotten close to a college) had never even dreamed of, and the oldest son of a rich family; and he probably knew that I was a twenty-five-year-old country boy, that I had volunteered for the Military Academy when I got out of high school only to fail and then enter the army, where I caught the clap once, and that I was now working in the military affairs section of a ward office. (밑줄은 필자의 것)

TT3-OLD (p. 20): The conversation started off between myself and the graduate student. // When some small talk and the self-introductions were over, I knew that he was a twenty-five-year-old flower of Korean youth with the name of An, a graduate student with a major I had never even dreamt of, and the oldest son of a rich family. // And he knew that I was a twenty-five-year-old country boy, that I had volunteered for the Military Academy when I got out of high school only to fail and then enter the army where I caught the clap once, and that I was now working in the military affairs section of a ward office.

8) 『소년이 온다』(한강 작)의 번역에서 데보라 스미스는 이탤릭체를 유표적으로 사용한다. 그녀의 이탤릭체는 (1) 인물 내면의 갈등과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고, (2) 등장인물의 성격을 강조하며, 나아가 (3) 등장인물의 가치관을 유표적으로 드러낸다(조의연·조숙희 2017).

「서울, 1964년 겨울」에 나타난 김승옥의 문체적 특징은 인물 간의 대화는 짧고 간결한 반면, 상황을 설명하는 “나”의 내레이션은 만연체라는 점이다(김혜련 1995). 예컨대 [예시 7]의 ST를 보면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 문장들이 실제로는 단일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장구조는 TT1과 TT3에서 각각 다르게 번역되었다. TT1에서는 ST의 한 문장을 네 개의 문장으로 분리해 간결하면서도 잘 읽히는 단락으로 재구성한 반면, TT3에서는 괄호, 쉼표, 세미콜론을 활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재현하였다(TT2도 TT3와 마찬가지로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TT3에서는 영어의 담화관습에 맞지 않게 문장을 길게 엮었고 밑줄 친 부분처럼 문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만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문장 구성에 대한 TT3 번역가의 고심을 TT3-OLD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TT3 번역가도 60년대에는 TT1에서와 마찬가지로 ST를 여러 개의 문장으로 분리함으로써 영어권 독자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텍스트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자기교정에서는 ST의 문장 연결을 보다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어색한 문명 구조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예시 8]

ST (pp. 89-101): 미용 학원이라는 간판에 불이 붙고 있었다. ‘원’자(字)에 불기 시작했다. [...] 물줄기 하나가 불타고 있는 ‘학’으로 달려들고 있었다. [...] 불은 날째 ‘용’을 훑고 있었다. 나는 ‘미’까지 어서 불붙기를 바라고 있었고 [...]

TT1 (pp. 227-228): A sign saying, “Beauty School” had caught fire, and the flames had begun to burn the word “school.” [...] A stream of water leaped at the burning “school.” [...] The flames licked vigorously at the letter *B*. I was hoping the *Y* would burst into flames, too [...]

TT2 (pp. 342-343): I saw the flames catching the signboard of the hairdressing school. Soon the flame began at the last letter of the signboard. [...] A jet of water landed on the burning second last letter of the signboard [...] Meanwhile the flames swiftly licked the third last letter. I secretly hoped that the fire would soon catch up with the very first letter [...]

TT3 (pp. 96-97): The *School of Hairdressing* sign had caught fire, and flames began to lick at the *dressing*. [...] A stream of water struck the burning *Hair*. [...] The flames licked nimbly at *of*. I was hoping they would catch on to *School* as well [...]

TT3-OLD (p. 30): The sign which said ‘SCHOOL OF HAIR DRESSING’ had caught fire and flames began to lick at the ‘DRESSING.’ [...] A stream of water was flying into the burning ‘HAIR.’ [...] The flames licked nimbly at ‘OF.’ I was hoping they would catch on to ‘SCHOOL.’ as well [...]

끝으로 “미용학원”이라는 간판 글자가 한 자씩 불타는 상황을 묘사한 [예시 8]을 살펴보자. 여기서 주인공 “나”는 “원” → “학” → “용” → “미”의 순으로 불길이 번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는 영어와 한국어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간판 글자의 번역이 난해하다는 점이다. [예시 8]에서 간판의 각 글자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간판 글자 “미용학원”을 번역한 방법(이탤릭체와 문장부호의 사용은 TT 그대로임)

ST	“미용학원”	“원”	“학”	“용”	“미”
TT1	“Beauty School”	“School”	“School”	the letter <i>B</i>	the [letter] <i>Y</i>
TT2	언급 없음	the last letter	the second last letter	the third last letter	the very first letter
TT3	<i>School of Hairdressing</i>	<i>dressing</i>	<i>Hair</i>	<i>of</i>	<i>School</i>
TT3 OLD	‘SCHOOL OF HAIR DRESSING’	‘DRESSING’	‘HAIR’	‘OF’	‘SCHOOL’

TT1에서는 간판 이름인 “미용학원”을 자연스러운 등가어인 “Beauty School”(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현)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 번역으로는 ST와 동일한 글자 단위로 불길이 번지는 과정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번역가는 School → School → *B* → *Y*(이탤릭체는 TT1 그대로임)라는, ST와는 매우 다른 대응 관계를 만들었다. 한편 TT2에서는 간판 명을 의도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ST의 글자 순서를 고려하여 ‘(서수) + letter’로 번역하였다. 이러한 방식으

로는 독자의 머릿속에 간판 이미지를 그려놓지는 못하지만 ST 자체의 지시적 관계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 한편 TT3에서는 TT1, TT2와 달리 자연스러운 영어를 취하면서도 ST의 글자 단위와 순서를 고려하였다. TT3-OLD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TT3와 동일한 접근법이 사용되었으나 이탤릭체 대신 대문자와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였으며 불길기 번지는 글자 단위를 의도적으로 맞추기 위해 ‘Hairdressing’이라는 단어를 어법에 어긋나게 “Hair Dressing”으로 띄어 적었다. 결국 TT3-OLD는 관계적 측면에서 볼 때 ‘보다 ST 지향적’이고 TT3는 TT3-OLD에 비해 ‘TT 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논의 및 결론

5.1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을 통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일부 영역들이 분석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분석 텍스트의 성격과 지면의 제약을 고려할 때 체계기능언어학의 모든 영역을 고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각 메타기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하위 영역, 예컨대 경험적 메타기능의 동사성(transitivity), 상호적 메타기능의 무드(mood)와 모달리티(modality), 구성적 메타기능에 속하는 이끔부 구성(thematization) 등은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간극을 고려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작품의 일부 영역만을 고찰했을 뿐 작품 전반에 대한 포괄적 논의나 정량적 분석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결과만으로는 각 TT에 대해 품질평가를 할 수 없다. 특정 번역에 대한 품질평가는 본 연구가 소홀히 했던 텍스트적, 화용론적 분석을 포함할 때만이 가능하다. 셋째, 본 연구는 각 번역의 실제독자(real reader)를 대상으로 실증적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 즉, 필자의 분석 내용은 어디까지나 내포독자(implied reader)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독자들이 필자의 주장대로 느낄지는

확언할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이상빈(Lee 2011)의 경우처럼 분석 내용을 실증적(empirical)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5.2 한국문학번역에 관한 제언

앞서 확인하였듯이 TT3 번역가는 자기교정을 통해 ST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물론 다른 TT에서도 나름의 장점과 특징이 확인되었지만, TT3의 번역 전략과 접근법은 한국문학, 특히 정전의 지위를 누리는 한국소설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었다. 필자는 앞서 소개한 TT3의 특징에 주목하여 한국문학번역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낮설게 번역하기’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TT3에는 자국화를 사용한 TT3-OLD와는 달리 메타기능별로 낮설게 번역한 사례가 있었다. 예컨대 ‘소주’라는 문화지시어는 특별한 설명 없이 이탤릭체로 강조한 “soju”로 음역하여 해당 어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했다(경험적 메타기능). 또한 “형”에 대해서는 간단한 부가설명과 함께 “hy ng”이라는 음역을 사용하여 TT 독자는 물론 ST 독자에게도 신선한 시각을 부여하였다(상호적 메타기능). 한편 작가나 “나”의 화법과 관련된 예시에서는 불편할 정도로 긴 문장을 ST에서와 같이 한 문장으로 유지함으로써 영어권 독자들에게 낯선 영어와 읽기경험을 제공하였다(구성적 메타기능).

이처럼 ‘낮춤’을 주는 번역은 그 정도가 과하지 않는 한 나름의 효과가 있다. 가령 새로운 읽기경험을 추구하는 영어권 독자들에게 한국문화의 ‘색깔’을 최대한 보존하여 전할 수 있다(참고로 Sun 2018을 확인할 것). 또한 언어·문화 간 차이, 원저자의 독특한 작법 등으로 발생하는 번역불가능성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ST의 문체나 인물의 화법 등을 지키면서도 모국어(도착어)의 지평을 넓히는 문화 글쓰기(cultural writing)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번역은 TT 언어·문화권에서 쉽게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Cronin 2003: 38, 이상빈 2014: 136에서 인용)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시도의 가치가 있고, 조재룡·김두리(2017: 98)가 아래 인용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윤리적 번역일 수도 있다.

[번역가] 김화영의 재번역은 원문의 특수성과 문체를 실현하려는 번역이며, 번역의 윤리란, 지워질 수 없는 타자의 고유성을 살려내려는 노력으로 모국어의 지평을 넓히려 모험을 할 때 성립한다는 사실을 고지한다. “독자의 가독성을 돕는 의역을 가능한 한 피하고 원문의 탈색된 문체를 그대로 유지, 표현”하고자 한 그의 재번역은, ‘낯설’의 최대치를 가지고 한국어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이를 가능한 독서의 반열 위로 올려놓으려는 과감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김화영의 재번역은 “도착어 안에서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출발어-문화의 자국화를 경계하고 ‘병합’(annexion)을 물리치는 번역의 윤리도 실천한다.

낯설게 번역하기는 TT 독자를 ST의 언어·문화권으로 강제로 이끌거나 외국화(foreignization)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탤릭체를 통해 인물심리를 효과적으로 재현한 번역이나 “HAIR + DRESSING”을 “Hairdressing”으로 바꾼 재번역은 ST의 메시지를 유지하면서도 도착어의 담화 관습(문법)과 번역독자를 지켜낸 사례이다. 또한 “hy ng”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그 의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절한 설명을 추가한 전략은 음역으로부터 오는 긴장감을 적절히 협상하여 풀어낸 것이다. 결국, 낯설게 번역하기가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번역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며 번역가의 개입 정도와 종류는 TT3의 경우처럼 ST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때만이 파악 가능하다.

둘째, 한국문학의 번역은 인물의 심리·관계·화법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 층위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TT3에서는 인물의 심리·관계·화법 등을 (1)단어, (2)단어+단어, (3)문법, (4)문장 이상 등의 다양한 언어 층위(Baker 2011)에서 구현하였다. 예컨대 “안”에 대한 주인공의 진심을 표현한 “그 안경쟁이”(단어 차원), 인물 관계를 표상하는 “형”이라는 호칭어(단어와 절), 인물의 속마음을 유표적으로 드러낸 이탤릭체(문법 체계에 속하는 문장부호), 주인공의 상황 내레이션(문장 간 연결) 등에서는 다른 TT와의 의미 있는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번역소설에서의 인물묘사는 소설의 사건이나 작품의 주제를 재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이상빈 2018). 소설 연구의 대가 켈러(Culler 1975: 230)는 “많은 독자들에게 인물은 소설 속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라고 지적했고, 하비(Harvey 1968: 23)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위대한 소설은 인물을 드

러내고 탐구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묘사와 관련된 국내 번역학 연구는 번역학 내에서 소설 장르가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상빈(2011, 한영소설번역), 김혜림(2017, 중한소설번역), 이상빈·이선우(2018, 영한소설번역) 등이 본 논문에서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보다 바람직해보이는 번역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논했을 뿐이다.

번역이 인물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번역가와 번역연구자의 교감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상빈·이선우(20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자는 실제 번역가와의 논의를 통해 인물묘사와 관련된 학술적 관점과 번역가의 실무적 관점을 비교·확인할 필요가 있다.⁹⁾ 한편 번역가는 자신이 번역할 작품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인물묘사에 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인물을 섬세하게 번역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번역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는 자칫 번역실무의 제약을 모르는, 비판을 위한 담론으로 그칠 수 있다. 번역의 모든 부분이 그러하겠지만, ‘X의 관점에서 Y는 오역이다’ 식의 논의는 번역가와 번역연구자의 단층을 두텁게 할 뿐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셋째, 재번역의 가치를 인정하고 재번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TT3는 TT3-OLD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TT3-OLD의 연장선상에 있는 번역이며 TT3의 존재는 TT3-OLD를 전제할 때만이 가능하다. 또한 TT3-OLD는 60~70년대의 번역적 사고를 간직한 텍스트이며, TT3는 그러한 텍스트가 동일 번역가를 통해 90년대 상황에 맞게 진화한 산물이다. 또한 공시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TT3는 TT1 및 TT2와의 공존과 대응을 통해서만이 그 특징과 가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고 미래의 번역 프로젝트에도 다양한 영감을 제공할 수 있다.

재번역은 동시대에 나온 것이든 시간을 두고 나온 것이든 원문의 사료(史料)로써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번역이 거듭될수록 원천문화의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유의 흔적을 보다 뚜렷히 확인할 수 있고 번역문화의 흐름도 보다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다. 재번역은 그 품질이 낫다하더라도 원문과 번역에 대

9) 이상빈·이선우는 주인공에 대한 분석 내용을 번역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 생산적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담론은 대개 해당 번역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재번역은 이전 번역사(翻譯史)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교과서가 시대 및 상황에 따라 여러 사학자를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번역’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문학도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번역되어야 생존력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유한내(2017a)와 조재룡·김두리(2017)의 주장은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온다.

재번역은 기존 번역을 지워내는 작업이 아니다. 재번역은 지금-여기의 독서지평으로 기존의 번역본을 끌고 오려는 노력의 소산이며, 대상 번역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각의 번역은 고유한 각각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시대의 언어-문화적 지평과 문학적 특성을 탐구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조재룡·김두리 2017: 92).

기존 번역의 결함을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는 한, 번역과 재번역이 문학작품이 고전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재번역이 이전 번역의 결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전으로서의 원작의 생명을 지속시키고 번역자의 해석 및 선택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상생이 가능하다(유한내 2017a: 109-110).

따라서 재번역은 그 자체로 원문의 위상과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The Great Gatsby*의 번역본(「위대한 개츠비」)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나 언론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온 적이 있다. 한 신문기사에서는 네이버 자료에 기초하여 다수의 「위대한 개츠비」를 비교한 후, “작가의 의도나 문장구조를 잘 살려 원문에 충실. 약간 지나친 직역(번역가 김옥동)”, “의역과 추가한 부분이 많아 잘 읽히나 과한 의역이 보임. 반말표현을 사용하는 신선한 시도가 돋보임(번역가 김영하)” 등의 비교 평가를 제시한 바 있다(팀영개 2015). 그런데 이러한 평가를 좀 더 멀리서 바라보면 진정한 승자는 특정 번역본이나 번역가가 아닌, 원문과 원저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물론 *The Great Gatsby*는 기본적으로 훌륭한 작품이다. 하지만 「위대한 개츠비」라는 번역을 통해 위대해졌고 다수의 재번역을 통해 더욱 더 위대해졌다.

재번역은 TT3의 경우처럼 자기교정의 형태로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한국문학의 재번역은 주로 타자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번역에 대한 사고는 같

은 번역가라 할지라도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르고 원문이나 저자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호칭어 번역의 차이를 보여준 [사례 5]나 문장연결의 차이를 드러낸 [사례 7]에서 확인하였듯이, 자기교정은 타자에 의한 재번역보다 급진적일 수 있고 문학적 가치를 보다 온전히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공을 거둔 *The Vegetarian*이 테보라 스미스에 의해 재번역되는 것을 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참고문헌

- 박순례 (2017) 「아랍어 번역에 나타난 문화 어휘에 관한 고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아랍어와 아랍문학』 21(3): 1-27.
- 금지아 (2015) 「한중번역에서의 문화소 번역전략」, 『번역학 연구』 16(3): 7-26.
- 김경희 (2007) 「번역자에 따른 번역의 차이 - 『서울 1964년 겨울』의 프랑스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72: 145-171.
- 김경희 (2017) 「한불문학번역에서의 음식명 번역에 관한 고찰」, 『프랑스학 연구』 82: 5-30.
- 김대중 (2016)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 연구」, 『인문과학연구』 51: 31-58.
- 김순영 (2010) 「김동인의 『감자』 영역본 분석: 문체 번역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2(1): 79-95.
- 김영신 (2012) 「번역 서평 분석을 통한 번역사의 비가시성 연구 - ‘엄마를 부탁해’의 서평 분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63-78.
- 김영신 (2016)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37: 37-55.
- 김옥동 (2010) 「한국 문학의 영문 오역」, 『통번역학 연구』 14(1): 31-65.
- 김정연 (2015) 「La traduction d'œuvres littéraires coréennes en français」, 『통번역학연구』 19(4): 145-212.
- 김혜련 (1995) 「서울, 1964년 겨울의 문체 분석」, 『동악어문논집』 30: 379-412.
- 김혜림 (2017) 「중환 소설 번역의 인물형상화와 서술어 변환 양상 고찰: 라오서

- 의 『낙타상즈(駱駝祥子)』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3): 27-53.
- 두산백과 (n.d.) ‘서울, 1964년 겨울’,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69577.
- 로브나 (2016) 『한국 도시화와 산업화를 대표하는 현대 단편소설 아랍어 번역 연구: 「서울 1964년 겨울」, 「타인의 방」, 「삼포 가는 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마승혜 (2017) 「독자수용성 제고를 위한 번역 비가시성 요소 분석 및 논의: 『채식주의자』와 영역본 *The Vegetarian*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1): 101-135.
- 박옥수 (2010) 「“서울, 1964년 겨울”의 영어 번역물 분석: 텍스트 배경, 인물 성격,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1(2): 33-62.
- 성초림 (2009) 「한국문학의 스페인어번역: 공동 작업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요소 번역의 문제점」, 『통역과 번역』 11(1): 43-62.
- 신지선·조혜진 (2018) 「번역서에 대한 한국과 영미권 독자의 서평 비교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43: 105-129.
- 신혜정 (2017) 「데버러 스미스의 『채식주의자』 다시쓰기: 번역 관점에서 본 문제점 및 향후 과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10): 657-666.
- 오미형 (2011) 「무녀도를 통해 본 무속문화 번역과 이미지」, 『통번역학연구』 15(3): 53-73.
- 유한내 (2017a) 「재번역을 재고하다: 결여 패러다임에서 다양성 패러다임으로」, 『번역학 연구』 18(1): 95-116.
- 유한내 (2017b) 「세계문학 - 한국문학의 세계화가 나아갈 길」, 『통역과 번역』 19(2): 131-152.
- 이상빈 (2014) 「문화번역의 텍스트적 재현과 ‘번역’: 이창래의 *Native Speaker*와 그 번역본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4): 119-140.
- 이상빈·이선우 (2018) 「인물형상화와 페미니즘 번역: 제임스 톱트리 주니어의 SF 소설 『휴스턴, 휴스턴, 들리는가?』를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9(1): 147-176.
- 이인규 (2017)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 연구』 18(3): 173-205.

- 이지민 (2018) 「채식주의자 영역본 *The Vegetarian*의 삭제 전략 연구」, 『통번역학연구』 22(1): 179-207.
- 이창수 (2016) 「동일 원문 한영 소설 번역문 간 화법 번역 차이 연구」, 『번역학 연구』 17(5): 233-250.
- 이현주 (2018) 「개념적 은유표현의 중국어 번역방법 연구: 한국소설 속 ‘사랑’ 표현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1): 209-234.
- 이형진 (2016) 「한국문학 번역의 문화번역 - 한국문학의 문화번역 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7(3): 139-164.
- 조의연·조숙희 (2017) 「이탈릭체의 문체적 활용: 『소년이 온다』 한영번역연구」, 『번역학 연구』 18(5): 231-252.
- 조재룡·김두리 (2017) 「재(再)번역은 무엇인가」, 『民族文化』 50: 73-104.
- 최미경 (2011) ‘La métonymie et la synecdoque dans la traduction littéraire - problèmes et suggestions’, 『불어불문학연구』 85: 39-78.
- 최수연 (2017) 「한국 현대 소설의 영어 번역 출판 전략」, 『통번역학연구』 21(1): 239-274.
- 최희경 (2016) 「한영 문학 번역 문체 연구: 코퍼스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3): 193-216.
- 탐영개 (2015) ‘번역을 비평하고 싶다면? 위대한 개츠비 번역 비교’, 슬로우뉴스, <http://slownews.kr/43694>.
- 한미애 (2011) 「문학번역에 대한 인지시학적 접근: 황순원의 『학』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2(4): 205-229.
- Baker, Mona (2011) *In Other Words*,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 Culler, Jonathan (1975) *Structuralist Poetics*, London: Routledge.
- Halliday, M.A.K. and C.M.I.M. Matthiessen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4th edition, London: Routledge.
- Harvey, William (1968) *Character and the Novel*, Ithaca, NY: Cornell UP.
- Lee, Sang-Bin (2011) ‘Fictional Characterization and Reader Response’, Doctoral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Lee, Sang-Bin (2018) ‘Shifts in Characterization in Literary Translation: Representation of the “I”-Protagonist of Yi Sang’s *Wings*’, *Acta Koreana*

21(1): 283-307.

Sun, Yifeng (2018) *Translating Foreign Otherness*, London: Routledge.

Thompson, Geoff (2014)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London: Routledge.

<분석 대상 도서>

김성옥 (1965/1966). 『서울, 1964년 겨울』, 김성옥 (편저), 『서울, 1964년 겨울』, 서울: 창우사, 253-282.

Kim, Sŭng-ok (1966) ‘Seoul-1964-Winter’ (Translated by Marshall Pihl), *Korea Journal* (November 1966): 20-33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5).

Kim, Sŭng-ok (1990) ‘Seoul: Winter 1964’ (Translated by Peter Lee), in Peter Lee (ed.) *Modern Korean Literature: An Antholog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16-232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5).

Kim, Sung-ok (1995) ‘Winter, 1964, Seoul’ (Translated by Chong-wa Chung), in Chong-wa Chung (ed.) *Modern Korean Literature: An Anthology 1908-65*,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331-347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5).

Kim, Sŭngok (1993) ‘Seoul: 1964, Winter’ (Translated by Marshall Pihl), in Marshall Pihl and Bruce & Ju-Chan Fulton (eds) *Land of Exile: Contemporary Korean Fiction*, Armonk: M.E. Sharpe, 84-101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65).

[Abstract]

**Thoughts on modern Korean literature in translation:
Investigating three translations and one translation revision of
Sŏul, 1964 nyŏn kyŏul (Seoul, 1964 Winter)**

Lee, Sang-B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this study, four English translations of Kim Sŭng-ok’s *S ŭl, 1964 ny n ky ul* (one of which is an American translator’s revision of his own translation) are compared with each other, using perspectives on three metafunctions in Halliday’s functional grammar. In the area of experiential metafunction, culture-specific references (e.g. *soju, paksa keim*) are examined to show how they construe the world. In the area of interpersonal metafun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main characters is analysed in detail, with an emphasis on a form of address (*hy ng*) and the “I”-protagonist’s innermost feelings about his interlocutor (‘An’). Finally, in textual metafunction, the four translations are examined in terms of syntactic structures and cohesive relations. Drawing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discusses how to enrich and promote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It is then argued that de-familiarising and delicate characterising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in translating Korean literature.

▶ Keywords: *Seoul: 1964, Winter*, cultural references (culture-specific items), systemic functional grammar, retranslation, the translator’s self-revision

▶ 주제어: 『서울, 1964년 겨울』, 문화지시어, 체계기능언어학, 재번역, 자기교정

이상빈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EICC학과 부교수

resangbin@daum.net

관심분야: 페미니즘 번역, 트랜스크리에이션, 광고번역, 통역평가

논문투고일: 2018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27일